

문제 2.

2.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원본과 증거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하라.

1) 대법원 판례

- 대법원은 증거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피압수·수색 당사자가 해당 증거 USB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함을 확인한 서명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음.
- 다만, 예외적으로 원칙과 같은 방법에 의해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, 해당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·봉인·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증거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거나,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음의 연계보관성을 증명하는 방법,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.

2)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 준수

- 사본 생성 과정 중 이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사진·영상 촬영하고, 쓰기방지 장치 또는 (논리적) 쓰기방지 설정(윈도우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용/Encase Fastbloc SE 사용)을 통해 원본을 읽기 상태에서 사본을 생성함으로써 원본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. 이후, 사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해 입회인/참관인에게 서명날인을 받는다. 또한, 연계보관성을 위해 이미지 생성 이후 증거원본usb를 훼손방지/무결성 유지를 위해 충격보호케이스에 포장하여 상세정보(사건번호, 수집자, 입회인, 수집환경 등)를 기록한다. 이후 입회인/참관인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연계보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며,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확인자의 서명을 받는다.

3) 자격을 갖춘 분석가와 도구의 선정

- 무결성 유지를 위해 분석가는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, 분석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일관성있게 도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